

# 온 겨레에게 민족단합의 현장을 안겨 주시어



오는 6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27돌이 되는 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 앞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발표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변방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그 무슨 《특별사찰》을 운운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해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비범한 예지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결과 신앙, 제도와 소속, 거주지역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대단합한장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인 민

족대단결사상과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한없이 넓은 포용력과 덕망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자한자 작성하시고 발표하시어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시고 온 민족의 총동원력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것처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런 애국애족의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으심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이 뜻아 빛을 뿌릴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내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영원이 찬란히 꽃피어나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될것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의회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불철주야의 혁명실력을 능수능아가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한길을 곳곳이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천하제일위인을 전채 조선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이 세상 타 없는 민족적공지와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의회 모든 공민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동같이 묶어세우며 그이께서 조선반도와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조국인민들과 해외공민들의 자주적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 남은 생을 깡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1. 전체 인민들이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어놓

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문은별

## 민족적공지와 자주심에 넘쳐

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조선혁명의 뜻을 올리시던 그 시절에 벌써 근로하는 인민이 잘살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대산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는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류가 오

랜 세월 그리도 애라게 갈망하던 인민이 주인된 나라, 사회주의락원을 조국 땅우에 일떠세워주시었으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 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들과 피로써 영구불멸의 조중친선을 맺으시고 정성껏 키워주시어 두 나라 인민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호적으로 지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었으며 세계 자주주의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어 조선인민뿐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정치가나 령도자들이 많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위인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눈

##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전후 북남협상제안을 지지하여

전후시기에 와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암흑의 장막을 뚫고 로동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임금인상, 8시간로동제의 실시 등을 요구하여 부산, 군산, 마산의 부두로동자들이 벌린 투쟁으로 시작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광적 규모에서뿐만아니라 질적측면에서도 장성하였다. 남조선농민들도 점차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도 활기를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대중적불만의 장성과정은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이 커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1954년 10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협상과 접촉을 실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것을 제안한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북남협상의 길에서 조국통일의 서광을 내다본 남조선인민들은 이 호소문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은 남일을 공출, 백여종의 잡부금으로 빼앗아가고 빈궁과 기아만을 남겨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선전에 속지 말고 남북협상을 위하여 투쟁하자!

2. 전체 인민들이여! 협의로써 해결보지 못할만한 난문제나 분쟁문제는 없다. 조선민족은 하나이며 조선은 조선사람의것이다.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의 손으로, 1954년 10월 최고인민회의결정에 의한 남북협상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자!

남조선의 애국적인인민들은 북남협상을 지지하는 선전물들을 남조선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 지어는 《정부》기관에도 널리 보내는 대담한 활동을 벌렸다.

당시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화국의 호소문은 《민도의원의원》들에게 36통, 《행정요인》들에게 64통, 《행정요인》들에게 47통,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에게 87통, 언론, 예술계와 기타 실업가대표들에게 144통이 보내졌으며 이밖에 선전비라로 된 호소문은 2 991장, 편지는 2 215장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 북남협상개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갔다. 남조선의 언론계에서도 통일을 지지하는 론조가 대두하게 되었다. 《한국일보》는 사실에서 《남북이 서로 접근하고 협상하여야 한다는 전국민의 갈망에 의하여 우리는 통일문제를 토

## 제주도해녀와 나누신 이야기

주체56(1967)년 8월초 어느날이었다.

합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 지지도 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수산사업소에 지난날 제주도의 해녀였던 나이 지숙한 녀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친히 그를 가까이 부르시었다.

무슨 사연인지도 알지 못한채 차에 오른 녀인은 얼마후 어느 한 곳에 도착하였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 녀인의 앞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주 걸어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시라고 해서 앉았다고 하시며 고향이 제주도라기에 함께 이야기나 하자고 이렇게 수고로이 오시라고 했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늦추어 녀인과 나란히 지나시며 년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고향은 제주도 어딘가고 물으시었다.

녀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어떨 가나 금수강산이니 필경 제주도도 경치가 좋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녀인은 어려움도 있고 제주도경치에 대하여 함양동안이나 자랑을 늘어놓았다.

녀인이 두서없이 하는 자랑을 흥미있게 듣고나신 그이께서는 고향에 가까운 혈육이라도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두고온 딸이 있으며 헤어진지 30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가까이 지내는 동무들끼리도 얼마동안 만나지 못하면 그리워지는데 친혈육이 30년 세월을 서로 갈라져 소식조차 모르고있으니 얼마나 보고싶겠는가고 하시며 오늘은 우리하고 함께 보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가 휴양소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도록 각별한 사상을 돌려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시었다.

그때로부터 꼭 한해가 지난 여름

어느날 또다시 그 녀인을 불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다에 나가겠는데 함께 나가자고, 어찌될말고 어서 배에 오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끄시었다.

잡시후 배는 부두를 떠났다. 일군들에게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이께서는 녀인에게 다가가시어 고향에 두고온 딸생각을 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렇다는 녀인의 솔직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배길에 제주도와 잇닿아있으니 고향생각이 왜 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오도록 남쪽바다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이 배를 타고 내져 제주도까지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물새들도 자유롭게 북과 남을 오고가는데 한피줄을 나누는 부모저자들이 서로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뒤말을 잊지 못하시었다.

《우리 모녀때문에 너무 속을 쓰지 마십시오.》

녀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혈육들이 서로 갈라져 이제는 얼굴도 모르게 된 이 비통한 일이 어찌 어머니네 한 가정만의 비극이겠는가, 온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시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속소알 백사장을 거니시며 일군들에게 지금 국도의 량단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조국통일은 더이상 머물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주도해녀를 다시 만나보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교시하시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을 일군들은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한일혁



진보당장당대회